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 제 169 호

2017 년 11 월 15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개최 안내 (11/17)
2.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토론회 공동개최 결과 보고 (11/14)
3.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독일 - 11/21, EU - 12/5)
4.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 ■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
2. 호주, 국가적 다자 대담에서 기업과 인권에 주목
3. 유엔글로벌콤팩트 터키협회, '지속가능 금융 선언' 발간

## ■ SDGs 소식

1. [Goal 6, 7,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두산중공업
2. [SDGs 시장 기회] 스마트 시티(Smart City)

## ■ 회원사 뉴스

1. "사회적 책임 준수 기업이 주가 수익률 더 높다"
2. 세계 3대 '큰손'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의원
3. [안전경영] LG화학, 환경안전조직 CEO 직속으로 통합

## ■ CSR 뉴스

1. 『땅과 사람들』 Vol. 16- 내일로 미래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 최종구 "기업경영 투명성 높인다"...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3. 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4. 중국서 빛난 한국 기업 사회공헌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개최 안내(11/17)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몇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은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존엄성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메가 스포츠 행사의 준비와 개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UNGC 10대 원칙, GRI G4, ISO 26000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하도록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UNGC 회원사이자 대회 공식 후원사인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행사를 구현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비전과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본 조찬 포럼에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 오전 7:00 - 8:30  
**장소:** 더 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F)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CEO 및 실무진  
 (회원사: 무료 / 비회원사: 참가비 50,000원)  
 \*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7:00-07:30	30' 조찬
	07:30-07:35	5' 환영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7:35-08:05	30'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08:05-08:25	20'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사례 발표 - KT 이선주 상무 (10') - 한국 코카콜라 구남주 이사 (10')
	08:25-08:30	5'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소개

연사 소개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 현 산업자원부 장관
- 현 한국무역협회 회장
- 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현 STX에너지-STX중공업 출장 회장
- 현 사우디아라비아 칸인들마르스대 국제재문위원
- 현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CEO), 고문
- 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조찬 포럼 신청 바로가기\]](#)

## 2.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토론회 공동개최 결과 보고(11/14)

11 월 14 일(화), 동자아트홀에서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과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에 사회적 가치를 담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학계, 언론 관계자가 모여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본 토론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 사회적 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학회, 여시재, 중앙일보 리셋코리아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환영사에서 여시재 이광재 원장은 “사회적 가치법의 도입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라며, “단일한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아래서 위로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현 광주 광산구 민형배 구청장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모인 행정협의회”라고 소개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전진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오늘 참석한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의 귀한 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주체 중 하나”라며, “UNGC 의 10 대 원칙은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협력 과정을 거친 협약들에서 유래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 기본법, 그리고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사회적 경제 법 센터 더함의 양동수 대표 / 변호사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의 역할을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현황,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의 및 확장 가능성,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식과 작동구조,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책임연구원은 UNGC 및 전 세계적인 CSR 동향 소개와 함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회책임경영 법제화 동향, 기업의 사회적가치 내재화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팀장은 “이미 기업들은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문 평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관련 강화되는 CSR 관련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투자, 조달 등 CSR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SG 정보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조사본부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부분 논란은 사회적 가치 자체보다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우 한국 사회적 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적 가치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우 대표는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자발적, 호혜적이며, 이 참여방식은 공공성, 공익성, 구성원, 민주성, 자유, 연대, 협동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형석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법의 전체적인 기초를 보면 정부가 사회적 가치 도입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철학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에 있어서는 민관의 협치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그 사회의 가치 규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정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 /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특수 가치 혹은 개별 가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과, 도전, 창의의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을 추진하고, 정부의 거버넌스에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영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시민정치분과장 /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시민민주주의다. SDGs 16 번은 정부 정책에 관한 것으로, 관용성, 포용성,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바로 수단과 목표로서의 시민민주주의를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현 시점에 달성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민간부문이 주도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단일한 가치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UNGC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사회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합의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3.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독일 - 11/21, EU - 12/5)



한독상공회의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1월 21일 (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공동 개최합니다.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의 반부패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반부패 대응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기업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경영 교육, 연구, 자기진단(Self Assessment) 등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0:00~13:30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A  
**주최:** 한독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9:30~10:00	30' 등록
	10:00~10:10	10' <b>개회사</b> - 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 김중갑, (주)지멘스 회장 &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0:10~10:40	30' <b>독일의 반부패 법과 제도: 민간부문의 적용과 시사점</b> - Joern Elbracht, 김앤장 변호사
	10:40~11:10	30' <b>기업의 반부패 대응: ISO37001 과 부패 리스크 관리</b> - 한성욱 이사, 딜로이트
	11:10~12:10	60' <b>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 (기업 사례 발표)</b> - 지멘스코리아 - 팔자이스 코리아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TBC)
	12:10~12:30	20' <b>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가이드라인 안내</b>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12:30~13:30	60' 오찬



####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 본 행사는 독일 관계 기업 외에도 참석 가능하오니 유럽 반부패법과 기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유럽진출기업 및 국내 공급/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UNGC 한국협회는 오는 12월 5일(화) 주한 EU 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FPC EU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4.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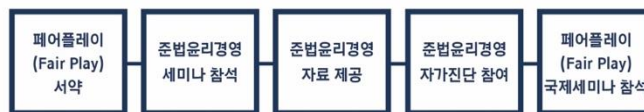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英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기관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http://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과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효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 본부 소식

##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디지털 통화로 바꾸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수입원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리더: 데이빗 캣츠(David Katz), 션 프랭크슨(Shaun Frankson), 플라스틱 뱅크(The Plastic Bank)
- 장소: 캐나다 밴쿠버

플라스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디서든 쉽게 사용되는 이 합성 물질은 사용 후에도 아무데나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지나 해변에 버려진 폐 플라스틱은 수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 환경과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밴쿠버 주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출신 데이빗 캣츠(David Katz)는 싱귤래리티 대학(Singularity University)에서 열흘 간 강의를 들으며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단 이를 만에 지구를 더럽히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관리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폐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 문제를 20년 간 고민해 왔습니다.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해안과 물가가 오염되는 걸 자주 봐 왔고, 심지어 매년 더 심각해졌죠.”

캣츠 대표는 사회적 기업가 션 프랭크슨(Shuan Frankson)과 함께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를 설립했습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폐 플라스틱을 빈곤층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바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수집된 폐 플라스틱을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으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 통화로 교환해줍니다. 플라스틱 교환 앱을 통해 디지털 통화는 지속가능한 요리유나 3D 프린터 상품, 와이 파이(WiFi) 서비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통한 휴대폰 충전 서비스 등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해 소액 대출 담보를 마련하고 가정용 난로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플라스틱 뱅크를 통해 3D 프린터와 플라스틱 성형기 등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수 필터, 스페너 같은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 파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소셜 플라스틱(Social Plastic)'은 수집가들이 폐 플라스틱을 알갱이로 가공해 만들어내는 재활용 플라스틱입니다. 소셜 플라스틱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은 빈곤을 퇴치하는 동시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지만 기업들은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원자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사회적 임팩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뱅크의 첫 사업은 2013년 페루의 리마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아이티에서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중국해 주변 지역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인도에도 센터가 설립될 계획입니다. 영국 화장품회사 러쉬(LUSH Cosmetics)도 플라스틱 뱅크와 협력해 자사 생산 제품에 소셜 플라스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조과정에서 소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캣즈 대표는 이 문장 하나에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빈곤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플라스틱 뱅크의 노력에 공감하신다면, 기업들에게 소셜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페이스북 캠페인](#)에 참여해 보세요!

*소개된 회사 및 사례는 토론과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선별한 것으로, 개별적인 회사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원문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2. 호주, 국가적 다자 대담에서 기업과 인권에 주목



100 명이 넘는 각 부문의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제 4 회 호주 기업과 인권 대담(Australian Dialogu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석하기 위해 2017 년 10 월 31 일 멜버른에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와 호주 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본 대담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호주의 주요 연례행사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기업, 정부, 시민 사회, 투자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호주 기업들이 자국과 해외에서 부정적인 인권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대응할지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온 기업 대표 50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앨리스 코프(Alice Cope), UNGC 호주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외를 막론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 인권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NGO 와 투자자,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 개발과 주주 결의안 및 기타 지지 운동에서 기업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대담은 기업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인권 관련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짐머맨(Vanessa Zimmerman), UNGC 호주협회 인권 리더십그룹 의장은 “호주에서 2017 년은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더 명확한 정부의 요구사항과 더 공정한 경쟁의 장, 그리고 동반 역량 강화를 통해 얻는 이점을 인식한 호주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조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머맨 의장은 “본 대담과 같은 토론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기업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동 방안들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워드 산토우(Edward Santow), 인권위원회 위원은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 모두는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어떤 지역에서 특히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등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향상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호주에서는 대기업들에게 현대판 노예제도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2017 년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 [원문보기](#)
- [유엔글로벌콤팩트 호주협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 [호주 기업과 인권 대담\(Australian Dialogu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해 더 알아보기](#)

### 3. 유엔글로벌콤팩트 터키협회, '지속가능 금융 선언'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 7 개 금융 회원사(Akbank, Garanti, ING Bank, Isbank, Şekerbank, Yapı Kredi, TSKB)가 "지속가능한 금융 선언(Declaration on Sustainable Finance)"에 서명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터키협회 주도 하에 마련된 본 선언은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분석해 신용거래 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금융 선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기준을 경영 활동과 고객 서비스에 반영하여, 기업 공동체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환경 이니셔티브(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와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유엔 사회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과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은 전세계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의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더 큰 상승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전략에 기반하여, UNGC 터키협회는 금융부문이 신용평가절차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힘입어 탄생한 "지속가능 금융 선언(Declaration on Sustainable Finance)"은 터키 금융 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본 선언은 9 월 29 일 열린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V 포럼(V. Forum on Sustainable Finance)'에서 출범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터키협회가 SKD Turkiye,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와 공동 주최한 본 포럼에는 메멧 심섹(Mehmet şimşek) 터키 부총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편, 올해 지속가능금융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부문"이 핵심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원문보기](#)
- [유엔글로벌콤팩트 터키협회의 '지속가능 금융 선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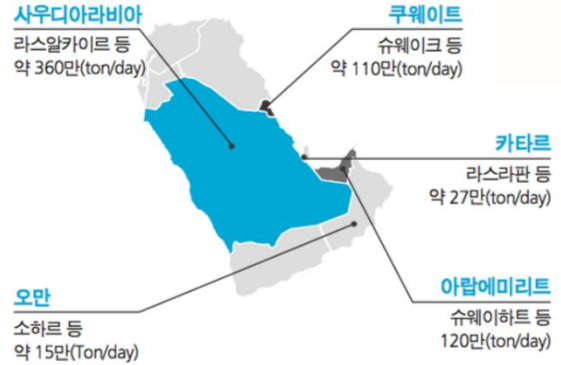
# SDGs 소식

## 1. [Goal 6, 7,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두산중공업



###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2030년까지 Water 사업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지역 수자원 보유량을 BAU 대비 10% (20억 톤) 이상 증대시켜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사업적, 환경적, 지역적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수자원 확보사업으로 수자원 고갈과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해 있는 아라비아 반도는 수자원 보유량이 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알카이르, 쿠웨이트 슈웨이크 등 담수화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자원 보유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담맘(Dammam)에 두산 Water R&D 글로벌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워터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여, 증발법, 하이브리드 담수화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담수 플랜트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수 담수화 및 수처리 플랜트, 수처리 설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SDG 7. 지속가능한 에너지

"2030년까지 고효율 친환경 발전기술로 전 세계 신흥시장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 공급량을 BAU 대비 6%(40GW) 이상 증대시키고, 고효율 가스터빈·풍력발전·ESS 등의 에너지 기술 증진을 통해 에너지 믹스 다각화에 기여한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은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이산화탄소 저감에 유리한 친환경 고효율 1,000MW 초초임계압 화력발전 시장이 인도,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초초임계압(USC) 발전설비 모델 대중화를 통해 발전효율을 개선하고 연료 소비를 절감시키는 친환경 고효율 화력발전소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dd-on, Retrofit 등 After Market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Service Business Group 을 새롭게 출범하고, 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통한 고효율 전력공급 확보는 물론 NOx, CO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SDG 13. 기후변화행동

*"2030년까지 대한민국 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0%(7만 톤) 감축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기후변화는 극한 기후현상,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지구 생태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준수를 위해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장 설비 시설 효율성 향상 등 Smart Energy 관리와, 폐열을 활용한 발전 효율성 향상 등 폐열발전에너지 공급망 개선 활동을 중점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에너지 및 연소 후 포집기술, 순산소연소 등 녹색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황,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Green Partnership 을 통한 협력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SDGs 우수 이행 사례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 일부입니다.

## About These SDGs Goals

 <p><b>6</b> CLEAN WATER AND SANITATION</p>  <p><b>6.4</b>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p> <p>The Global Goals ① ②</p>	<p>“SDGs 세부목표 6.4는 용수효율 증대와 담수의 추출 및 공급의 보장을 통한 <b>물 부족 해소</b>를 목표로 합니다.”</p> <p>1998년 6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담수 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글로벌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거론하여 2000년 세계물평가프로그램(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을 개시하였습니다.</p> <p>이 프로그램은 3년 단위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를 발간하여 담수 자원의 이용현황과 물과 관련된 MDGs 이행을 보고하였고, 2015년 WWDR에서는 <b>2050년까지 모든 사람이 양질의 물을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 안전세계</b>를 이룩하기 위해 물 부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p>
 <p><b>7</b> AFFORDABLE AND CLEAN ENERGY</p>  <p><b>7.3</b>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p> <p>The Global Goals ① ②</p>	<p>“SDGs 세부목표 7.3은 <b>에너지 효율 개선율의 두 배 증대</b>를 목표로 합니다.”</p> <p>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의 자발적 이행계획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정부가 <b>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정가격의 청정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보존 기술을 확산</b>하여 국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p> <p>이 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 중요성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4차 세션에서 에너지와 산업을 주제로 에너지 소비 경향, 각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을 논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에서는 세 번째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SDGs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p><b>13</b> CLIMATE ACTION</p>  <p><b>13.3</b>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p> <p>The Global Goals ① ②</p>	<p>“SDGs 세부목표 13.3은 <b>기후변화 완화 및 조기경보에 관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b>를 목표로 합니다.”</p> <p>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 제6조에서는 동 협약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 이행하며 기후 변화에 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회의(2009)에서 본 선언(Boh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교육(CC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제고를 추진했습니다.</p> <p>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기후적응행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기상관측 시스템을 강화하는 칸쿤기후적응 프레임워크 (Cancun Adaptation Framework)를 발족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 같은 노력에 이어 기후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p>

## 2. [SDGs 시장 기회] 스마트 시티(Smart City)



*빅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트레스가 높은 도시 내에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 어버니즘(Smart Urbanism)'이라는 개념은 효율성, 거주성,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도시 계획과 디자인, 운영 전반을 포괄합니다.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는 더 효율적인 건물과 대중 교통 시스템을 실현해내는 도시 계획 및 건축 방식뿐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나 센서,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시민 간 협업도 중요합니다.

### MARKET KEY NUMBERS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 시티' 시장  
성장 규모는 연평균  
약 19.4% 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12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7,57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한 전 세계의 예상  
수입은 250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 통신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보다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수자원이나 전기, 대중 교통 같은 서로 다른 분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오염이나 물의 흐름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적 우선 사항들 중 건강 및 환경적 영향에 집중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는

시민의 웰빙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들을 극복하는 한편,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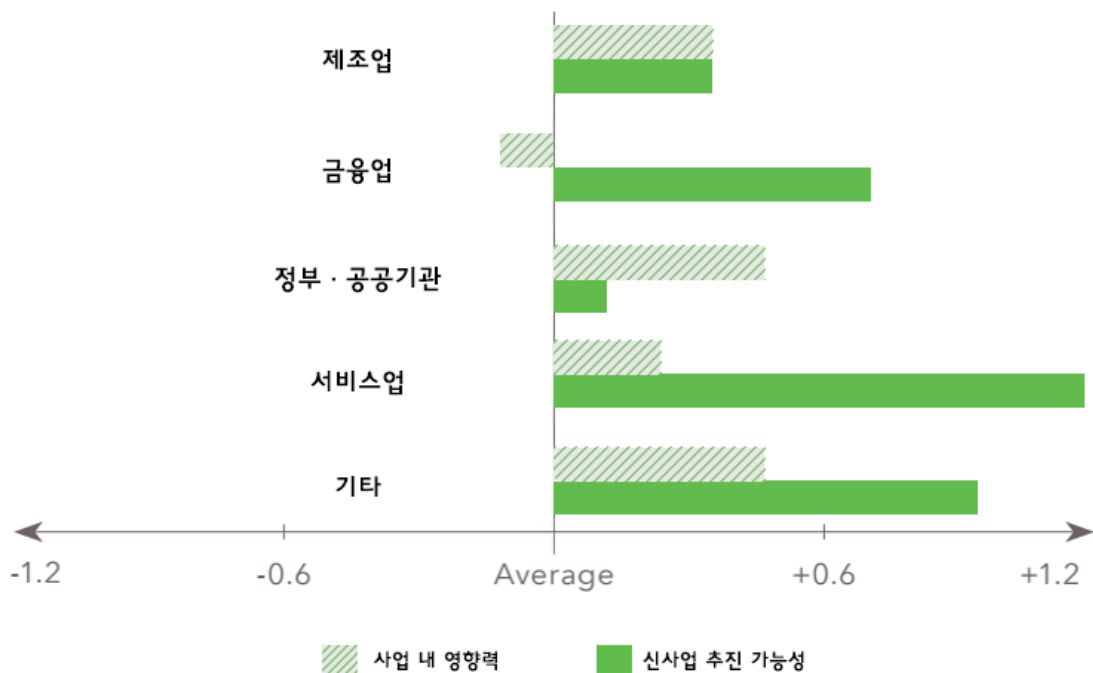
'스마트 어버니즘'은 기존 시장은 물론 신흥 시장에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촉진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흥경제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 시티를 즉각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자원은 부족한 곳에서, 스마트한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참여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시장에서는 시스템들이 노후화되고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으며, 도시 간 협업 부족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개발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와 각 부문의 협업은 효율성 증가와 동시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스마트 어버니즘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시 관리의 새로운 참여 방식과 기술 및 오픈 데이터 시스템 사용 확대를 통해 도시 계획과 운영은 더욱 더 지속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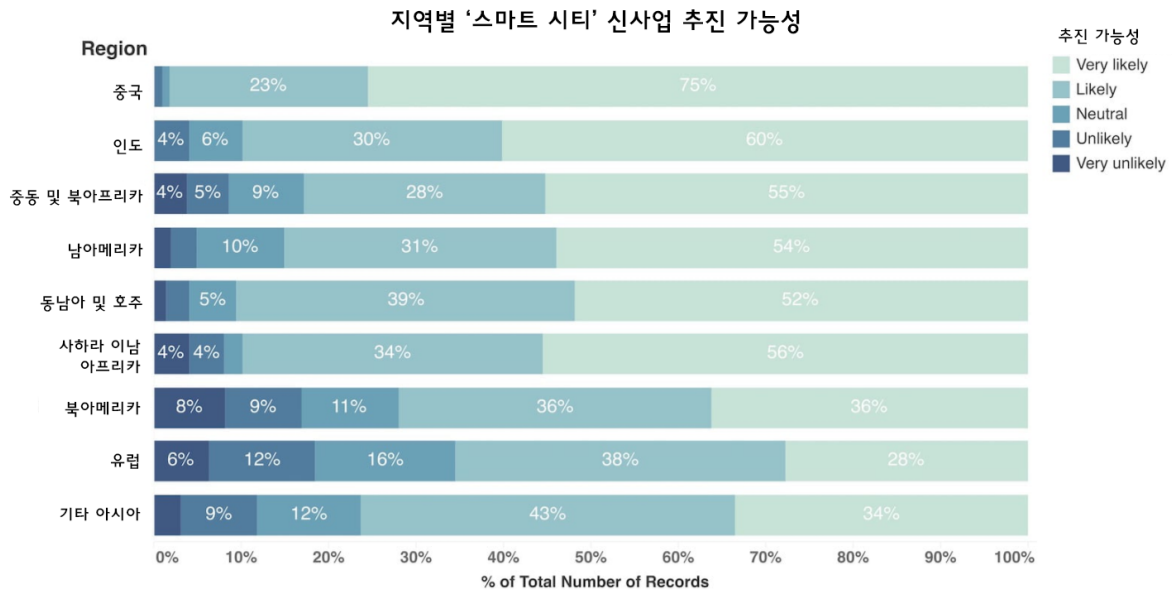
**[조사 결과]**

2014 년, 서스테이니아(Sustainia)는 리서치 회사 유거브(YouGov)와 함께 전세계 5,500 명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 시장 기회는 기업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스마트 시티' 잠재력 응답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과 '기타' 기업 응답자들은 스마트 시티가 현재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비스업' 부문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시장 기회가 신사업의 큰 영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 부문의 응답자들 또한 이 시장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신사업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을 위한 큰 잠재력은 지리적 측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 시장 기회가 신사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15 글로벌 기회 리포트\(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회원사 뉴스

## 1. "사회적 책임 준수 기업이 주가 수익률 더 높다"

금인쇄하기 ×닫기

"사회적 책임 준수 기업이 주가 수익률 더 높다"

기사입력 2017/11/07 15:33 송고

---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결과 포스코·KSS해운 '최우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장사들의 주가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가 주요 상장사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점수가 양호한 '투자가능종목군'의 2010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주가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30.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27.57%)이나 코스피200의 수익률(29.9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사회책임투자 컨설팅 기업 서스틴베스트가 주요 상장사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점수가 양호한 '투자가능종목군'의 주가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주가 수익률이 평균 30.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은 경영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나타남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ESG 성과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 2. 세계 3대 '큰손'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의원

 헤럴드경제

### 세계 3대 '큰손'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의원

2017-11-08 08:4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문성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7일 전북 전주의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소득층 가입지원과 출산·실업크레딧 등 가입 기간 늘리기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취임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강조함

-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 3. [안전경영] LG 화학, 환경안전조직 CEO 직속으로 통합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 [안전경영] LG화학, 환경안전조직 CEO 직속으로 통합

입력 2017-11-06 16:39 수정 2017-11-06 16:39



LG화학 여수공장 직원들이 공장 내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LG화학 제공

- LG 는 안전경영을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전사 환경안전 심사 강화 등의 노력을 해움
- LG 전자는 환경안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4 년 환경안전 규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시스템화함
- LG 화학은 2014 년 안전환경 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본부 산하로 흩어져 있던 주요 공장들의 안전환경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이관함

- [원문보기 \(한국경제\)](#)

# CSR 뉴스

## 1. 『땅과 사람들』 Vol. 16- 내일로 미래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내일로 미래로

글/이진선  
사진/홍재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더 나은  
세계를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계를 꿈꾼다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 당시 재임 중이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의 기업인, 정치가, 학자,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단에 섰다. "저는 오늘 다보스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제안합니다. UN은 '인간 중심의 세계 경제 구현을 위해,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지닌 국제 규약, 즉 '글로벌콤팩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UN 주도의 전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Initiative),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가 그 태동을 알리는 순간이다. 이후 2000년 7월, UNGC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분야, 10대 원칙으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변화와 노력에 기업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끄는 곳, UNGC다.



### '기업시민'의 가치 키우는 자발적 협의체

CSR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그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가깝게는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낳은 가슴기 살균제 사태부터 멀리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졌던 엔론 사태까지, 기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회 속에서 기업의 자리,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진 이유다. 아무리 경영을 잘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UNGC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 '기업시민의식' 향상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UNGC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자발성. 자발적인 기업시민의 협약체로서 UNGC는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시민'의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키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한국협회 발족 10년, 245개 기업·기관 활동 중

전 세계 170여 개국 1만 2,804개 회원(9,670개 기업회원 포함)이 활동하고 있는 UNGC의 한국협회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취임한 해인 2007년 발족했다. 올해로 활동 10주년을 맞은 UNGC 한국협회에는 약 245개의 기업, 기관, NGO 등이 동참하고 있다. 회원사의 면면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다양하다.

강제성 없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UNGC 자체가 지닌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기업이 UN 사무총장 앞으로 UNGC 4대 가치와 10대 원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CEO 서명의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가입 절차가 시작된다. 가입 이후 영리기업은 1년에 한번씩, 비영리 기관은 2년에 한번씩 COP(Communication on Process), COE(Communication on Engagement)라는 이름의 이행보고서 및 참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CEO의 지속적인 UNGC 지지선언과 그간의 실질적인 UNGC 원칙 이행활동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EO가 직접 공개적으로 약속한 UNGC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실제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 및 브랜드 가치, 직원의 사기와 생산성, 경영효율성이 높아진다. 'CSR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나 투자자 등의 결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UNGC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CSR을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CSR 이슈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업이 해당 현안에 대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상시적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 및 단체 대표와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UN을 비롯한 국제회의 및 지역 네트워크 회의 자리에 한국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알리는 것도 UNGC 한국협회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다. 국토 조사에 드론을 활용해 탄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 국토정보관리체계를 튀니지에 전파하는 등 LX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우수사례도 올해 UNGC 한국협회가 10주년을 맞아 발행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수이행 사례집'에 수록된 바 있다. 이 사례집은 영문 번역을 거쳐 UNGC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인과 만난다.

### 가이드라인 제공 통해 기업의 미래 가꾼다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는 달라진다.

UNGC 한국협회는 기업들에게 CSR 인식을 제고하고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며 책무를 실행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슬하게 들었지만 무엇보다 해야 할지 막막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 반부패 프로젝트의 하나인 '페어플레이어 클럽'이나 매년 초 진행되는 'FPC 준법윤리경영 서약 선포식' 등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 1 지난 9월 11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 2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전과 가치를 적극 실현해 온 기업들에게는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 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입구에는 유엔 SDGs 및 CSR 관련 상징물이 자리하고 있다

마련하도록 돕는다. CEO들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돕는 CEO 포럼,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강연 프로그램, 젊은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 등도 UNGC 한국협회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업무분야다.

올해 9월 UN에서 열렸던 'UNGC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 2017'에 참여했던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의 CEO 폴 풀먼은 SDGs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화의 과정이 다 그렇듯 SDGs 이행에도 장애물과 지연, 냉소와 회의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용감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UNGC와 UNGC 한국협회는 더 많은 '용감한 리더십'의 활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보다 다양하고 많은 기업과 기관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함께하게 될 날을 꿈꾸며, UNGC 한국협회는 오늘도 미래를 가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창립한 이래 벌써 10년이 지났다. 올해 4월 취임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석범 사무총장을 만났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선 소비자, 근로자들이 윤리 경영을 더 많이 알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국제적 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국내적으로도 주주 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UNGC는 사회적 책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UNGC 회원 모두가 SDGs와 UNGC를 알리는 민간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간 UNGC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UNGC의 가치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는 LX와 같은 기업과 기관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4월 중책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가겠다, 설정한 방향이 있는지요?**

일단은 회원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규모는 245개사인데, 다행인 것은 타 국가보다 한국의 네트워크에 대기업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어요. 아직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들도 많아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오는 12월에 저희 사무실을 옮겨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을 전망이에요. 이를 모멘텀 삼아 회원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 문제로 인해 그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경영자는 물론 실무자 차원의 프로그램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일이 저희 UNGC의 몫입니다.

**LX도 UNGC의 회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LX야 이미 너무 잘해 주고 계시죠. 2007년 창단 멤버로 가입해 꾸준히 활동 중인 데다 페어 플레이 클럽에도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우수사례도 올해 UNGC 한국협회 10주년 기념 우수이행 사례집에 수록되었을 정도니까요. 회비도 성실하게 내 주시고요.(웃음) 저희로서는 다른 기업들이 LX만큼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굳이 더 바란다면, 공사나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LX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등이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UNGC와의 활동 상황을 많이 알려 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UNGC의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동참을 이끌기 위해선 일반 독자들의 이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땅과 사람들>의 독자들 중 대부분은 소비자이거나 근로자일 겁니다. 기업이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소비자, 근로자들이 윤리 경영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UNGC가 하는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가 역점을 두어 하는 일 중에 후학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두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 최종구 "기업경영 투명성 높인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한국경제

프린트

닫기

### 최종구 "기업경영 투명성 높인다"...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입력 2017-11-09 08:08 수정 2017-11-09 08: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한다.

- 금융당국이 회계 개혁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최종구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기업의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이에 대한 평가가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원문보기 \(한국경제\)](#)

### 3. 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경향신문

## [창간기획·혐오를 넘어](5)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이영정 김찬호 유설희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입력 : 2017.11.05 15:22:00 | 수정 : 2017.11.05 22:39:20

#### # 혐이 세상은 혐오 대항법 (오각판)

혐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혐오의 근원을 찾아내고 '혐오'를 '혐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혐오의 근원을 찾아내고 '혐오'를 '혐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혐오의 근원을 찾아내고 '혐오'를 '혐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것은 혐오다" 알리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빠른 정보 알기 & 알리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과 제도 활용하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안에서 함께 맞서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내 안의 소수자성 생각해 보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상황등 & 인권교육 매뉴얼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혐의 안들기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혐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말하고 알리고 함께하면 사라집니다

- IMF, "이민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 장기적으로 2% 가량 증가"
- 삼성경제연구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 증가"
- 초국적 기업들은 '다양성이 부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고용을 넘어 이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기도 함
- 혐오에 쓰이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의적 에너지로 바꾼다면 우리 사회의 부와 역량이 증가할 것

- 원문보기 ([경향신문](#))

## 4. 중국서 빛난 한국 기업 사회공헌

### 중국서 빛난 한국 기업 사회공헌

조창원 기자 | 입력 : 2017.11.07 19:49 | 수정 : 2017.11.07 19:49

사드갈등 속 경영위축 뚫고 사회적책임경영 활동 호평  
중 사회책임발전지수 발표 중국삼성 4위,현대차 8위



【베이징=조창원 특파원】한국기업들이 한중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에 따른 경영위축 속에서도 중국내 사회적책임경영(CSR)활동에서 호평을 받았다.

- 중국 사회과학원이 7 일 발표한 '중국기업사회책임발전지수'의 종합 10 위권내에 우리나라 기업 두 곳이 포함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 특히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사회책임 발전지수에서 한국기업이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함
  - 한중 간 갈등 속에서도 CSR 활동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 돋보임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회원사 소식

## 1. 신규가입회원

11 월 3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3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안산도시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교통안전공단
- 성주디앤디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 2017 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기술보증기금,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국민연금, LG생활건강, DGB금융지주, 일성건설주식회사, 울산항만공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푸른나무 청예단,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에쓰오일,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한국언론진흥재단,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 4/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 /주임연구원